

# 澗松의 일들

芮 庸 海

窓이 西로 나 있는 澗松의 居室은 언제나 어둑한 便이었다. 그 西로 난 미닫이에 기대어 한 줄로 길게 놓인 文匣 위에는 冊이며 書類 더미 또는 그 마한 磁器類며 文房具 等屬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맞은 便 寢處에는 訓民正音原本을 비롯한 含荷鴨型硯滴 等 澗松이 收藏한 國寶와 重要美術品들이 큼직한 더미로 두께 두께 놓여 있었으니 二間房은 사람 두 셋이 무릎을 비비대어야만 앉을 수 있게 마련이었다.

비좁은 것은 房바닥 만이 아니었다. 壁이란 壁에는 書畫들이 걸려 빈 자리가 없다 싶이 하고 그것도 못 하나에 額子가 네 個 다 첫 個씩 포개져 있는 形便이었다.

아랫목에 언제나 보트를 깔고 平座를 치고 앉으시는 것인데 어께 넘어 에 五, 六〇本은 될 「네틀」이 「가 주렁 주렁 매달렸고 그때 그때 입으시는 洋服이 그 옆에 걸려 있는 것이다.

입으시는 洋服이라야 언제나 허름한 것이어서 무릎에 주름이 제대로 잡혀본 일을 別로히 본 것 같지가 않다. 어느해 겨울 이던가 여니때 처럼 보료위에 平座를 치고 술을 勸하시다 문득 입은 「세타」를 굵어 보더니 구멍이 뚫린 자리에 손구락을 넣어 내밀면서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렇게 헤어졌군』

하고는 구멍을 헤어 신다. 여러군데가 헤어진 「세타」였는데 그것도 같은 類의 것을 겹으로 끼어 입으신 것이다. 몸집이 富態시럽기는 했어도 추위는 타는 폭이 아니었던가 싶었다.

그런가 하면 인젠가는 新聞社의 古蹟關係 座談會에 모셨더니 約束된 場所인 某 「호텔」 「라비」에 正刻 五分前에 나오셨는데 길은 「부루우」의 W 洋服과 같은 系統의 「네틀」이 「네틀」 「올백」을 한 차림에 洗鍊된 모습이

어서 잠작 놀란 일도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와 같은 境遇는 例外 일 것이 돌아가시기 얼마 前宅으로 가 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입으신 洋服바지의 정경이는 큼직한 「字」로 찢어져 있었던 것이 눈에 선하다.

澗松은 衣服에 뿐만 아니라 飲食에도 퍼수수 하신 것 같은 짐작이 간다. 大體로 밖에서의 食性은 生鮮類를 좋아하시고 美食品 便이었겠지만 곧잘 「드람」 「桶」을 섞어 놓은 대륙집에서 작두기 조각을 씹으시는 것을 辭讓치 않았고 또 짙은 이들과 얘기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것도 어떤 술자리에서의 얘기였는데 話題가 紙鳶에 미치자 『꼭지鳶이 바람을 안고 높게 떴을때 일래를 잡아주면 산들산들과 란 하늘로 올라가는 品이 마치 외씨버선을 신은 女人의 걸음 맴시처럼 예쁘다.』

고 손짓 섞어가며 恍惚해 하셨다. 澗松의 審美하는 眼目은 非單 書畫骨董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生活속에 있었거나 않았는지 그렇게도 생각해보는 것이다.

「審美」云云의 말이 났으니 애긴데 澗松의 居室 壁에는 許多한 書畫가 번갈아 걸렸지만은 秋史의 橫書額子 두 幅만은 언제나 볼 수 있었으니 버섯머리에는 「經經緯史」요 말체는 「碧梧桐館」의 隸書이었다.

그 가운데서는 碧梧桐館 쪽을 좋아 하여 『書帖에서 떼어 낸 것인데 必是 落款이 있었겠지마는 冊을 매느라고 아마 네귀를 잘라 저렇게 된 것일 것이라』 고 說明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글씨가 저 程度이면 落款이 없더라도 秋史의 眞面目이 나타나 있다』고도 하셨다.

좀이 쓸어 군데군데 패였는 것이 무슨 紋樣처럼 幽趣를 더하여 果然 좋다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澗松은 좋은 거나 낡은 일이나 間에 말이나 마음에 치우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으니 그때도 그냥 自己의 愛藏品을 凡然한 말로 說明하는데만 그쳤던 것이다.

이것은 作故하신 다음에 들은 얘기지만 某大國에서 澗松에게 費用의 一切를 다 맡겨서 自己를 나라에서 收藏品의 展示를 要請했었다고 한

다. 勿論 澗松은 그것을 言下에 拒絕했다. 一部 그 事實을 안 사람이 운데는 『보고 싶으면 와서 보아라』하는 毅然한 態度에 感激를 했다고 들었다.

여니 사람 같은면 이런 境遇 흔히 平素에 大凡했던 그의 處身에 비겨 어긋진 異和感 같은 것을 느낄 일이지마는 澗松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도무지 없으니 이는 非凡으로 通하는 거룩한 平凡의 所以일 것으로 새삼 倉洞先塋에 잠든 澗松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 澗松 追慕記

金 元 龍

一代의 古美術品 蒐藏家로서 澗松의 舍名은 일찍부터 들어왔지만 처음 澗松을 뵈이게 된 것은 一九五七年이었다. 全盛彌하면 우리같은 靑面書生은 가까이 가기도 힘든 老貴族같은 타인의 人士라고 언제나 想像해왔던 나는 처음 뵈었을때의 젊고 平民적이고 柔和한 童顏에 一驚하였다.

午後五時頃 우리가 博物館에서 退勤하려고 하기 直前에 澗松은 事務室에 이따금 나타났다. 어떤때는 大漢門 들어오는 길에서 부닥치기도 하였다. 그의 모습은 達觀, 見性하고 童心으로 돌아간 老僧과도 같았다.

타이핀없는 古色蒼然한 넥타이에 아무렇게나 洋服을 걸치고 대포한잔하자고 呵呵大笑하던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영영 듣지 못하게 되었다. 澗松은 남을 誹謗하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僧惡과 罪惡을 모르고 자라난 꾸밈새없는 少年과 같이 아름다웠다. 나보다는 十五年이나 年長이지만은 그런 年令의 差異에는 都大體 無關心이고 무슨 同窓生같이 待하여 주셨다. 自己自身の 古美術에 對한 該博하고 深奧한 知識을 한번도 誇示해본 일 없고 누가 鑑定이나 意見を 請해도 담담해질 程度로 意見의 表明을 꺼렸다.

五年남직한 比較的 짧은 交有期間이었지만 澗松과는 여러번 會飲하였

다. 둘이서 만났을 때도 많지만 大體는 서너번이 合席하게 되는데 文化財保存會의 會議가 있는 날은 依例 몇몇이서 저녁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번번이 澗松의 負擔이 되었다. 우리들로서는 참 未安한 일이었지만 원체 食書生들이라 일일이 返禮할 道理없었고 어쩌다가 우리들이 데포한잔하면 이제는 二次會라고 또 끌려가 結局은 澗松이 또 負擔을 지게 되어 待接이 아니라 弊가 되곤 하였다.

澗松은 酒豪나 暴飲家는 아니었고 그저 愛酒家였는데 그것도 좋은 안주를 더 즐기신 것 같다. 그때 언제나 새로운 곳을 發見하고는 이번에는 아무데 가보라고 案内해주는데 和食집일 가셔도 房에 들어가 일 없고 반드시 「이다바」바로 옆에 앉았다. 그때야 진짜料理가 나온다는 것이다. 내가 生鮮料理를 무척 좋아 한다고 해서 和食집에는 잘 데려다 주셨고 또 「魚の料理」라는 新刊日書を 일부러 사서까지 주시며 自己가 襲擊하면 손수 生鮮회 만들어 달라고 弄삼아 말씀하시더니 襲擊한번 안하고 아무 때나 시고 말았다. 廣橋附近에 있는 新世界가 生鮮料理를 잘하기 때문에 그 집을 龍宮이라 부르며 자주 다녔는데 이렇게 生鮮 즐기다가는 죽어서 진짜 龍宮에 끌려가 되게 경질 것이라고 彼此 弄을 주고 반군 하였다. 더구나 自己가 먼저 가서 龍王을 잘 사귀어 두었다가 金元龍이 나중에 끌려오면 잘 봐주라 말해주겠다고 언제나 弄談하셨는데 이제 眞談이 된 것 같아 가슴 아프고 虛無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다.

澗松이 平生에 蒐集한 것 以外에 過眼하게된 古美術品の 數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特別 書畫의 境遇가 貴重해 澗松 書畫過眼錄같은 것을 적어 두시라고 모두 懇請하였었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李朝 繪畫史의 돌도 없는 좋은 資料가 되었을것인데 그것도 미처 着手 못하시고 不歸의 客으로 되셨다.

이제는 그 書籍과 書畫가 堆積한 舍廊房에서 新收品을 가운데 놓고美를 즐기며 琥珀의 香酒를 즐기며 절절 웃는다. 시던 澗松을 다시는 못보게 되었다. 그 웃음소리, 貴公子 같은 면서 어린이 같은 그 千萬金짜리 微笑가 귀에 새롭고 눈에 친한데 바로 그 분이 北風부는 倉洞山기슭 地下에 홀로이 누워 계시다니 이게 都大體 어찌된 일일까.